



천주교 전주교구

전 동 성 당

주임신부: 남 종 기 고 스 마
 보좌신부: 김 두 열 아우구스티노
 수녀: 강 도 순 레 지 나
 수녀: 최 윤 희 글 라 라
 사목회장: 김 평 기 토 마 스

55044 전주시 완산구 태조로 51(전동) 사무실: 284-3222/ 팩스: 282-6232, 애령회장:010-5023-6908

www.jeondong.or.kr / e-mail: jdcatholic@daum.net

2022년 교구장 사목교서 - “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.” (1테살5,17)

주일미사	토요일: 오후 4시(순례자미사)오후 6시(학생미사) 주 일: 오전 6시, 9시, 10시 30분(교중미사), 오후 5시			✦ 교황님의 기도 지향 가정들
	평일미사 월~토: 오전 6시, 화~금: 오전 11시			
성 시간	매월 첫 목요일 오전 10시	봉성체	매월 셋째 수요일오후 2시	전 세계 그리스도인 가정들이 일상생활에서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하고 체험하여 성덕으로 나아가도록 기도합니다.
고해성사	미사 전 15분	유아세례	홀수달 둘째 토요일 오후 5시	
예비자 교리반	일요일 오전 9시~10시, 화요일 저녁 7시30분~8시30분			

◆ 레지오마리아е 훈화(6/13~6/19)_보좌신부

“아빠(abbà), 아버지!”

신약 성경에서 기도는 본질적인 것에 다다르고자 하는 바람으로 **아빠(abbà)**, 곧 ‘아버지’ 라는 오직 한 단어에 집중합니다. 특히 바오로 서간에서는 예수님을 알게 된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에 대한 신뢰가 두터워집니다. 이 점에서 **아빠(abbà)**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그대로 유지하게 되었습니다.

이는 단순히 하느님의 신비에 연결되는 상징, 이 경우 하느님 아버지의 형상과 연결된 상징을 사용하는 문제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. 이는 우리 마음속을 온통 예수님의 세상 전부로 젖어 들게 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입니다. 만약 우리가 이 작업을 수행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‘주님의 기도’ 를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.

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을 **아빠(abbà)**라고 부르도록 초대하십니다. 이 표현은 애정과 따뜻함을 불러일으키며 우리를 순수했던 어린 시절로 돌아가게 합니다. 이는 아버지의 품 안에 꼭 안겨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무한한 애정을 느끼는 어린아이의 표상입니다. 그러니 우리도 모두 어린 아이의 마음으로 하느님을 ‘**아빠(abbà), 아버지!**’ 라 부르며 기도합니다.

물론 우리는 돌아온 탕자처럼 하느님에게서 멀리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. 하지만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“아버지” 라는 말에서 시작하여 기도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. 하느님께서는 멀리서나 가까이에서나 늘 우리를 향해 시선을 두고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시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 그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. 우리의 **아빠(abbà), 아버지** 하느님께서는 당신 얼굴을 우리에게 감추지 않을 것입니다.

누릉 천하	수진가새란 약국	가은노인복지센터	이곳에 광고주를 모십니다.	전주대건신협
수제 누룽지 전문점 명절 선물세트 각종 행사 답례품 김형대(올리아노) 박태연(마르타) 풍남문 정문 앞 H.P.010-8642-9105 ☎282-9005	약사 이현명(사도요한) 약사 신지현(베르베두아) 덕진구 세병남로25 (송천동2가) (에코삼성정형외과,에코라인 의원,에코롯데리아건물) ☎272-8066	주·야간보호, 요양시설 내집처럼 내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. 한삼숙(베로니카) 김정민(테레사) 대성동 고덕산장 부근 H.P.010-3621-6007 ☎282-9241		예금상당, 대출상당은 전주대건신협에서! 본점 ☎288-0191 이사장 송각호(바오로) 010-3675-4297

